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 및 부모의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최경호 · 이규미* · 최인숙**†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 · *아주대학교 · **정림초등학교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the Expressive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s' Social Support

Kyung-Ho Choi · Kyu-Mee Lee* · In-Sook Choi**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Ajou University · **Junglim Elementary School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expressive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arents' social support, which influence their self image.

Methods: The sampl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composed of 294 students in G elementary school, OO city, Kyounggido, the number of male students in the fifth year being 71, female 77, and male students in the sixth year being 73, female 73. After having excluded the data of 9 students among them due to their insincere rep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data of 285 students by using SPSS WIN Ver. 13.0.

Results: First, after having observed the average difference stemming from each method, this research found that there is no sexual difference in parents' social support. ($p < .05$). In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female students is higher only in active aspect than male students, but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other aspects. In expressive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showing-off and narcissistic expressive tendency of female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but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other aspects.

Second, this research found out the meaningful static correlation among parents' social support,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expressive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Parents' emotional, appreciative, and informative support has the static correlation with all the other aspects of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material support has the static correlation with children's academic, active, and general self-esteeming sense ($p < .05$, $p < .01$).

Third, this research observed, of all the aspects of parents' social support and

접 수 일 : 2006년 10월 18일, 채 택 일 : 2006년 11월 29일

† 교신저자 : 최인숙(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29 정림초등학교, Tel : 011-9635-8451, E-mail : cis1031@hanmail.net)

expressive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what variable is affecting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found that parents' appreciative support, showing-off and narcissistic expressive tendency, material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each in order, has meaningful influence ($p < .05$, $p < .01$). This fact shows that the further the children recognize these supports of their parents', the more affirmatively they recognize their competences, and the further the children of showing-off and narcissistic expressive disposition recognize their competences.

Conclusions: First, sampling was conducted of the fifth and sixth male and female students of OO elementary school, and s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has the applicative limitation in the generalization for all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further researches by broad sampling for the more advanced generalization.

Second, this research only observed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deriving from gender and school year, but the parents' social support levels perceived by children reveal many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ren's characters or their families' variable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subsequent researches on various variables.

Key Words: children, parents, social support, perceived competen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아동은 가정이라는 보호적 환경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대인관계로 인한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발달에 대한 주위의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아동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여전히 그 영향력이 높고(장연정, 2002),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문제나 부적응에도 관계가 깊다. Becker(1964)는 부모로부터 거부되거나 적대적인 양육을 받는

경우 즉,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경우 대인관계 부적응이나 비행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이준화, 2003 재인용).

아동의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이 누적되었을 때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자신의 가치감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변인들로서 통제소재,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원호택, 1991). 그 중에서도 환경적인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도록 하는 정보이고(Cobb, 1976),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기역량지각은 자신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용모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아 평가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동의 학교생활과 이후의 사회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아동의 역량발달과 자기역량지각은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이 문행, 1994). 즉,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스트레스의 감소와 적응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의 개인적 특성은 인생 초기의 사회화방식, 부모의 아동 양육방식, 주 양육자 상실 등 가정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부모의 지지와 훈육은 비행예방에 효과적이다(Kroupa, 1988; 정영숙, 김영희, 박범혁, 2001 재인용).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행동적, 심리적 특성 즉,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유능성, 대인관계, 적응 등과 관련이 있다는 개략적인 연구만 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 각각의 하위요인이 어떤 변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아동 중 자기역량지각과 자기표현 능력의 발달이 가장 활발한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즉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기설 및 문제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각 하위 요인들의 기여수준을 알아보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의 각 하위요인의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문제 2.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의 각 하위요인의 대인표현성향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시에 있는 G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로 5학년 남학생 71명, 여학생 77명과 6학년 남학생 73명, 여학생 73명으로 구성된 총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중 특수학급 학생 5명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4명을 포함한 9명을 제외하고 총 28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수준,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검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황윤경(199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

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네 가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7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태도와 행동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수는 총 24문항이다.

이 척도는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느끼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범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24점에서 120점으로 나오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정서적 지지	7	1, 2, 3, 4, 5, 6, 7	.87
평가적 지지	6	8, 9, 10, 11, 12, 13, 14, 15,	.81
정보적 지지	6	16, 17, 18, 19	.87
물질적 지지	5	20, 21, 22, 23, 24	.81

2) 자기역량지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아동의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김치영(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일반적인 자기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행동적 역량과 전반적인 자아가치감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학문적 역량은 학교생활이나 학문적 수행에 관한 내용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이 학교생활이나 학교성적에 있어서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역량은 아동들이 친구들과로부터 승인받거나 인기가 높은지 또는 친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생산적이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행동적 역량은 자신이 처신하는 방법에 만족하는 정도와 자신이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인 자아가치는 아동이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좋아하고 만족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척도는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로 각각의 영역에는 6개의 문항이 있어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1-4점으로 평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4점은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말하며 1점은 낮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두개의 질문

〈표 2〉 자기역량지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학문적 역량	6	1, 5, 9*, 13*, 17, 21*	.75
사회적 역량	6	2*, 6, 10*, 14, 18*, 22	.69
행동적 역량	6	3*, 7, 11, 15*, 19*, 23	.62
전반적인 자아가치	6	4*, 8*, 12, 16, 20, 24*	.80

* 역산한 문항임

중 자기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 뒤 그 결정에 대해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인가를 결정하게끔 한다. 얻어진 자료는 각각 영역별로 산출하게 되며 각 영역별 점수는 6점 - 24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역량지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3) 대인표현성향 척도

안범희(1985)가 제작하고 신만철(1992)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맞춰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다. 대인표현성향 척도는 3차원으로 5문항씩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차원별로 의미를 갖고, 차원의 합계는 의미가 없다.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 4점씩 부여하였고 각 차원당 5문항씩 이므로, 각 차원간 점수는 1점에서 20점까지 나오게 된다.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적-공격적 성향,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을 갖고, 점수가 낮을수록 비경쟁적-비공격적 성향, 자기 폐쇄적-자아 의식적 성향, 타협적-신뢰적 성향을 갖게 된다. 이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적-공격적 표현

〈표 3〉 대인표현성향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차원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표현성향	1	경쟁적	1, 4, 7,	5	.71
		공격적	10, 13		
	2	과시적	2, 5, 8,	5	.64
자기도취적		11, 14			
3	반항적	3, 6, 9,	5	.64	
불신적	12, 15				

성향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간섭을 싫어하고 비판적이며, 낮은 사람은 경쟁을 싫어하고 비공격적이다.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노출을 잘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낮은 사람은 자기 폐쇄적이고 자아 의식적이다.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권위에 도전하며 불평이 많고 경계적이나, 낮은 사람은 타협적이고 신뢰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표현성향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수집 자료는 SPSS WIN Ver. 1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성별, 학년별 구성개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별 평균값을 토대로 집단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 및 부모의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이 아동의 자

기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을 예측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대인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표현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예측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생 응답자의 분포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성별 분포(비율)

	5학년	6학년	계
남학생	70 (24.6)	72 (25.3)	142(49.8)
여학생	74 (26.0)	69 (24.2)	143(50.2)
계	144 (50.5)	141 (49.5)	285(100.0)

연구에 참여한 총 285명의 초등학교생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의 비율은 49.8%, 여학생의 비율은 50.2%이었으며, 5학년 학생이 전체의 50.5%에 해당하는 144명, 6학년 학생이 전체의 49.5%에 해당하는 141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분석에서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는 제외하고 분석에 임하였다.

2. 집단별 차이 검증

아동들의 성별, 학년별 구성개념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에 대한 평균값을 토대로

<표 5> 성별에 따른 각 척도별 평균 차이 검증

척도	남학생	여학생	t
정서적 지지	29.37	29.75	-.603
평가적 지지	24.66	24.83	-.355
정보적 지지	25.04	25.04	.015
물질적 지지	19.67	20.37	-1.406
부모의 사회적 지지 총합	98.76	100.12	-.671
학문적 역량	14.37	14.71	-.754
사회적 역량	16.16	15.64	1.194
행동적 역량	16.08	16.95	-2.347*
전반적 자아가치	18.77	17.98	1.515
자기역량지각 총합	65.55	65.62	-.048
표현성향 : 경쟁/공격	10.45	10.00	1.210
표현성향 : 과시/도취	9.76	10.59	-2.517*
표현성향 : 반항/불신	9.93	9.50	1.402
대인표현성향 총합	29.86	30.06	-.277

* p < .05

집단별 t-test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t-test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검증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차이검증에서는 행동적 역량(t=-2.347,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동적 역량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인표현성향에서는 과시/자기도취적 표현성향(t=-2.517,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학년에 따른 각 척도별 차이 검증은 <표-7>과 같으며, 부모의 사회적 지지 차이검증에서는 정서적 지지(t=2.425, p < .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요인에

<표 6> 학년에 따른 각 척도별 평균 차이 검증

척도	5학년	6학년	t
정서적 지지	30.31	28.80	2.425*
평가적 지지	25.09	24.39	1.404
정보적 지지	25.51	24.55	1.717
물질적 지지	20.15	19.90	.505
부모의 사회적 지지 총합	101.20	97.68	1.748
학문적 역량	14.63	14.46	.358
사회적 역량	16.08	15.70	.889
행동적 역량	16.60	16.46	.350
전반적 자아가치	18.72	17.98	1.432
자기역량지각 총합	66.42	64.75	1.148
표현성향 : 경쟁/공격	9.93	10.52	-1.591
표현성향 : 과시/도취	10.27	10.09	.546
표현성향 : 반항/불신	9.62	9.80	-.593
대인표현성향 총합	29.57	30.35	-1.042

* p < .05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에 비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척도별 상관분석 결과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지각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 수준과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역량 수준, 그리고 대인표현성향간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척도의 모든 하위 요인들 간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의 상관은 r=.488 (p < .01)로써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 중 평가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가장 상관(r=.53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시/도취적 표현성향과는 정적 상관(r=.18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항/불신적 표현성향과는 부적상관(r=-.19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공격

<표 7>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의 하위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809**	.712**	.619**	.903**	.305**	.278**	.282**	.415**	.428**	-.081	.132*	-.267**	-.084
2		.749**	.680**	.918**	.421**	.309**	.387**	.439**	.537**	-.063	.217**	-.178**	-.006
3			.656**	.887**	.339**	.232**	.324**	.367**	.450**	.015	.150*	-.104	.026
4				.828**	.259**	.103	.175**	.300**	.253**	.039	.176**	-.102	.061
5					.380**	.267**	.337**	.429**	.488**	-.034	.188**	-.190**	-.011
6						.415**	.636**	.363**	.771**	.084	.307**	.001	.165**
7							.489**	.384**	.751**	.062	.237**	.016	.151*
8								.506**	.834**	-.003	.339**	-.089	.114
9									.746**	-.075	.243**	-.181**	.000
10										-.014	.348**	-.073	.116
11											.368**	.436**	.844**
12												.082	.672**
13													.665**

* p < .05, ** p < .01

- | | | | | |
|---------------|-----------|---------------|----------|---------------|
| 1. 정서적지지 | 2. 평가적지지 | 3. 정보적지지 | 4. 물질적지지 | 5. 사회적지지 전체 |
| 6. 학문적역량 | 7. 사회적 역량 | 8. 행동적 역량 | 9. 자아가치 | 10. 역량지각 전체 |
| 11. 경쟁/공격적 성향 | | 12. 과시/도취적 성향 | | 13. 반항/불신적 성향 |
| 14. 표현성향 전체 | | | | |

<표 8> 남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의 하위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n=14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765**	.574**	.533**	.870**	.185*	.278**	.207*	.332**	.341**	-.136	.075	-.328**	-.169	
2		.674**	.627**	.899**	.367**	.259**	.336**	.297**	.440**	-.052	.181*	-.203*	-.033	
3			.609**	.841**	.281**	.217*	.264**	.225*	.352**	.109	.151	-.011	.102	
4				.802**	.181	.061	.078	.139	.137	.098	.091	-.066	.057	
5					.314**	.270**	.257**	.313**	.412**	-.016	.140	-.206*	-.038	
6						.320**	.500**	.114	.681**	.107	.248**	.126	.178	
7							.490**	.308**	.737**	.135	.159	.009	.154	
8								.470**	.835**	-.036	.293**	.044	.121	
9									.670**	-.054	.287**	-.219*	.011	
10										.035	.322**	-.052	.123	
11												.299**	.838**	
12													.631**	
13														.725**

* p < .05, ** p < .01

- 1. 정서적지지 2. 평가적지지 3. 정보적지지 4. 물질적지지 5. 사회적지지 전체
- 6. 학문적 역량 7. 사회적 역량 8. 행동적 역량 9. 자아가치 10. 역량지각 전체
- 11. 경쟁/공격적 성향 12. 과시/도취적 성향 13. 반항/불신적 성향
- 14. 표현성향 전체

<표 9> 여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의 하위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n=14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857**	.843**	.701**	.939**	.412**	.281**	.352**	.486**	.507**	-.014	.181*	-.192*	.003	
2		.802**	.724**	.931**	.467**	.351**	.432**	.534**	.603**	-.072	.246**	-.157	.015	
3			.698**	.923**	.389**	.246**	.381**	.460**	.524**	-.068	.148	-.203*	-.043	
4				.848**	.317**	.155	.236**	.435**	.350**	-.004	.230**	-.127	.062	
5					.429**	.272**	.395**	.510**	.542**	-.046	.221*	-.174*	.011	
6						.524**	.768**	.573**	.858**	.071	.352**	-.119	.153	
7							.520**	.439**	.775**	-.026	.342**	.009	.150	
8								.583**	.853**	.046	.347**	-.200*	.104	
9									.806**	-.110	.245**	-.167	-.008	
10										-.057	.377**	-.092	.109	
11												.472**	.854**	
12													.729**	
13														.602**

* p < .05, ** p < .01

- 1. 정서적지지 2. 평가적지지 3. 정보적지지 4. 물질적지지 5. 사회적지지 전체
- 6. 학문적 역량 7. 사회적 역량 8. 행동적 역량 9. 자아가치 10. 역량지각 전체
- 11. 경쟁/공격적 성향 12. 과시/도취적 성향 13. 반항/불신적 성향
- 14. 표현성향 전체

적 표현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 하위 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과시/도취적 표현성향과 정적 상관($r=.34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공격적 표현성향과 반항/불신적 표현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과 <표 9>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로 척도들의 요인 간 단순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의 각 하위요인과는 대부분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물질적 지지는 자기역량지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의 각 하위 요인들과는 일부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많은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는 자기역량지각과 대부분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의 각 하위 요인들과는 일부 부적 관련성을 갖지만 많은 변인들과 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이 자기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 요인과 아동들의 대인표현성향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전체 점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종속변인별 회귀분석은 또한 전체 집단,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아동들의 자기역량지각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아동들의 자기역량지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순서와 설명량은 조금씩 달랐다. 먼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평가적 지지가 28.8%($F=78.61, p < .001$)의

<표 10> 역량지각 전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	
역량 지각 전체	평가적 지지	.455***	.288		78.610	
	전체	표현성향-과시/도취	.249***	.345	.057	50.843
		물질적 지지	-.233**	.359	.014	35.921
		정보적 지지	.238**	.383	.023	29.593
남학생	평가적 지지	.549***	.210		23.853	
	표현성향-과시/도취	.254**	.272	.062	16.603	
	물질적 지지	-.228*	.304	.032	12.810	
여학생	평가적 지지	.477***	.347		54.169	
	표현성향-과시/도취	.354***	.403	.056	34.104	
	표현성향-경쟁/공격	-.198*	.431	.028	25.273	

* $p < .05$, ** $p < .01$, *** $p < .001$

설명력을 지니고 과시/도취적 표현성향,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가 각각 5.7%, 1.4%, 2.3%를 설명함으로써 총 38.3%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모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과시/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의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량지각전체에 물질적 지지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높아 평가적 지지가 회귀분석 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추출되고 나서 물질적 지지의 상관계수가 바뀐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즉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간의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도 평가적 지지, 과시/도취적 표현성향, 물질적 지지가 변량의 30.4%를 설명하였는데, 이중 평가적 지지가 21%($F=23.853$, $p < .001$)를 설명하고, 과시/도취적 표현성향이 6.2%, 물질적 지지가 3%를 추가로 설명해주었으나 물질적 지지는 변인들 간의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결과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역량지각전체에 대해서 평가적 지지가 34.7%($F=54.169$, $p < .001$)의 설명력을 지니고, 과시/도취적 표현성향이 5.6%, 경쟁/공격적 표현성향이 2.8%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43.1%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대인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 요인과 아동들의 자기역량지각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이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11>, <표 12>,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의 경쟁/공격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만이 경쟁/공격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F=8.830$, $p < .05$). 즉 아동이 부모의 애정, 돌봄 등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경쟁/공격적 표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가 4.5%, 정보적 지지가 7.5%를 설명함으로써 총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의 과시/자기도취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과시/도취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역량총합이 13.3%($F=30.239$, $p < .001$)로 유일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지각하는 자기 역량의 수준이 아동들의 과시적이고 자아도취적 표현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서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자기역량총합이 11.7%, 사회적 역량이 4%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남학생이 자신의 사회적 역량을 낮게 지각할수록 과시/도취적인 성향이 높게 표현됨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 자기역량총합이 과시/도취적 표현성향을 15%의 비율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표 11> 경쟁/공격적 표현성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
경쟁/ 공격적 표현성향	전체	정서적 지지	-.142*	.020	4.059
	남학생	정서적 지지	-.374***	.045	4.370
		정보적 지지	.318**	.120	.075
	여학생	-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과시/도취적 표현성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
과시/ 도취적 표현성향	전체	자기역량 총합	.365***	.133	30.239
	남학생	자기역량 총합	.536***	.117	12.291
		사회적 역량	-.282*	.158	.042
	여학생	자기역량 총합	.388***	.150	18.049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반항/불신적 표현성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
반항/ 불신적 표현 성향	전체	정서적 지지	-.335***	.079	16.814
		학문적 역량	.186**	.111	.032
	남학생	정서적 지지	-.476***	.173	19.248
		학문적 역량	.289**	.253	.080
여학생	정보적 지지	-.197***	.039	4.124	

* p < .05, ** p < .01,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의 반항/불신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반항/불신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지지가 7.9%(F=16.814, p < .001)를 설명해주었고, 학문적 역량이 3.2%(F=12.139, p < .01)를 추가로 설명함으로써 이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11.1%였다. 즉 아동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높게 지각할수록 반항/불신적 표현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정보적 지지가 3.9%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의 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 및 부모의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이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시에 있는 G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로 5학년 남학생 71명, 여학생 77명과 6학년 남학생 73명, 여학생 73명으로 구성된 총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명을 제외한 전체 285명의 자료를 SPSS WIN 13.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각 척도별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성별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행동적 역량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표현성향에서는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 각 척도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지각 수준이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동적 역량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고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는 학문적, 행동적,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간에는

일부 부적 상관을 갖지만 많은 변인들과 적정인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과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은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향적-불신적 표현성향은 정서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정보적, 물질적 지지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애정이나 돌봄 및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향적이고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성향이 높게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역량지각의 모든 하위요인과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향적-불신적 표현성향은 전반적인 자아가치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한광희(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물질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물질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간에 대체적으로 상관이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평가적 지지와 반향적-불신적 표현성향이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평가적 지지가 아동의 반향-불신적 표현성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셋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인표현성향의 각 하위요인 중에서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영

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평가적 지지,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게 되고,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의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평가적 지지,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 물질적 지지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가적 지지와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존감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 그 다음은 평가적 지지라는 Harter(1990)의 연구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평가적 지지와 가장 상관이 높다고 밝힌 윤미경(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부모가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동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아동의 전체적인 자기역량지각과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hillips(1987)의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자신들의 실제 성취에 대한 객관적 정보보다 부모의 평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연희, 1999 재인용)고 한 의견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들의 수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아동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주장한 이미애(200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역량지각전체에 물질적 지지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높아 평가적 지

지가 회귀분석 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추출되고 나서 물질적 지지의 상관계수가 바뀐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즉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간의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다공선성은 변인들 간의 상관이 높은 경우 하나의 변인이 회귀분석 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추출되고 나서 나머지 상관변인의 계수가 바뀌거나 부호까지도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역량지각의 각 하위요인 중 대인표현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대인표현성향의 경우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과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부정적인 성향이고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은 긍정적 성향으로 그 차원별 특징이 너무 다르다. 따라서 각 차원별로 의미를 갖고 차원의 합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차원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정, 돌봄 등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들이 대인관계에서 표현성향이 경쟁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감소한다는 김명숙(1995)과 한미현(1996)의 견해와 일치된다.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에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총합이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기역량지각을 전반적으로 크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은 과시적-자기도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남·여학생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에 사회적 역량이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스스로 자신이 친구가 없고 인기가 없다고 지각을 하게 되면 관심을 끌기 위해 오히려 더 과시적이고 자기도취적으로 표현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학문적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경험할수록 반항-불신적 대인표현성향이 높게 난다고 한 박미란(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 학문적 역량보다는 부모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즉, 정보적 지지를 주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요약한 것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에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표현인 경쟁적-공격적,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낮아지고, 바람직한 표현인 과시적-자기도취적인 성향은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논의한 후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학년 차는 있고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표현성향은 성별 차는 있고 학년에 따른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표현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그리고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과는 전혀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 즉, 긍정적인 대인표현성향과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정서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을 보이고 정보적, 물질적 지지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평가적 지지,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대인표현성향의 각 차원별로 가장 영향이 큰 변인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총합이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아동의 표현행동은 자신감 있고 과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학문적 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 학문적 역량보다는 부모의 정보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평가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 같은 부정적인 행동표현을 줄이고 과시적-자기도취적인 긍정적인 성향을 표현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일 때 아동은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을 많이 나타내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지속하는 경향이 적다는 신귀순(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을 통한 자아상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동들의 부정적인 표현에 따른 문제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대인표현성향이 긍정적이나, 부

정적이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표현 성향은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여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즉, 최근 학교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왕따, 폭력 등의 비행예방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효과적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에서 공격적인 표현을 자주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아동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다른 원인들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우선은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인인 친구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표집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표집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 차에 따른 지각의 차이만을 보았으나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의 성격이나 가족변인 등에 의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변인에 의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방적인 방향만을 고찰하였으므로 각 요인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와 자기역량지각, 대인표현성향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대해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이나 성인까지 해봄으로써 발달적인 변화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민주.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4.
2.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3. 김연희.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4. 김치영.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5.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6. 신귀순. 가족의 기능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관계성향[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7. 신만철. 아동기의 열등감수준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
8. 안범희.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9. 원호택.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정신건강연구 1991. 10. 37-50.
10. 윤미경.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상관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

- 대학교 대학원. 1998.
11. 이문행.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12. 이미애.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 연구[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2004.
 13. 이준화. 사립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3.
 14. 장연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15. 정영숙, 김영희, 박범혁.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시그마프레스. 2001.
 16. 한광희.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17.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18. 황윤경. 청소년 또래 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19. Cobb S.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1976. 38(5). 300-314.
 20.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82. 53. 77-87.
 21. Harter S.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self-representation: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treatment of maladaptiv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90. 14(2). 113-142.